

# 2019 미소 강경욱 선생의 9급 국가직 해설

## 1.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다른** 법이다.
-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잘 ㉡**크지** 못한다.
- 남부 지방에 홍수가 ㉢**나서** 많은 이재민이 생겼다.
- 그 사람이 농담은 하지만 ㉣**허튼** 말은 하지 않는다.
-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답) ②. [난도 중, 품사] - 예상한 문제 유형

- ㉡ 크지: 동사.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 ㉢ 나서: 동사. 홍수, 장마 따위의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 <오답 콕>

- ㉠ 다른: 형용사.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 ㉣ 허튼: 관형사. 쓸데없이 험하거나 막된
- ㉤ 아닐까: 형용사. (의문형으로 쓰여) 물음이나 짐작의 뜻을 나타내는 말. 사실을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 2. 다음의 여러 조건에 가장 잘 맞는 토론 논제는?

- 긍정 평서문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 쟁점이 하나여야 한다.
-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① 징병제도는 유지해야 한다.
- ② 정보통신방법을 개선할 수는 없다.
- ③ 야만적인 두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 ④ 내신 제도와 논술 시험을 개혁해야 한다.

### 답) ①. [난도 하, 화법/ 작문] - 예상한 문제 유형

- ② 부정의 평서문이다.
- ③ 두발 제한 폐지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이다.
- ④ 쟁점이 두 가지다.

## 3.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자: (관객들에게 무대와 등장인물을 설명한다.) 이곳은 황야입니다. 이리 떼의 내습을 알리는 망루가 세워져 있죠. 드높이 솟은 이 망루는 하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황혼, 초승달이 뜬 밤, 그리고 아침으로 변할 겁니다. 저기위를 바라보십시오.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시커먼 그림자로만 보입니다.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파수꾼이었습니다.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합니다.

-이강백, 「파수꾼」에서-

- ① 공간적 배경은 망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이다.
- ② 시간적 배경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변한다.
- ③ 해설자는 무대 위의 아버지를 소개한다.
- ④ 파수꾼의 얼굴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 답) ③. [난도 중, 희곡] - 예상한 문제 유형

무대 위에 있는 늙은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었다고 했다. 무대 위에 있는 아버지를 소개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미소 콕>

「파수꾼」은 1974년 8월 『현대문학』에 발표된 이강백의 희곡이다. 1975년 3월 현대극회에 의해 공연되었다. 이 작품은 우화적인 장치를 사용하여 제도적인 권력의 폭압성을 드러내는 이강백의 초기 작품세계를 잘 보여준다. 가상의 어느 마을에서 이리떼라고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루에 올라서 “이리떼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치는 파수꾼 ‘가’와, 그때마다 양철북을 두드리는 늙은 파수꾼 ‘나’의 아이러니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자원한 소년 파수꾼 ‘다’에 의하여 이리떼는 없고 아름다운 흰구름뿐이라는 진실이 밝혀지지만, 이마저도 마을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가상의 적인 이리떼를 설정해 놓아야만 한다는 촌장의 설득에 파묻혀 버리고, 결국 파수꾼 ‘다’도 열심히 양철북을 두드리게 된다.

이렇듯 이 작품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한 안보논리에 대한 통렬한 풍자를 보여준다. 이러한 풍자가 우화적인 장치를 통해서 빗대어 표현되고 있는 것이 이강백 초기 희곡의 특징인데, 「파수꾼」은 이러한 면모가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4. 두 사람의 대화에 적용된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아닌 것은?

“수빈 씨, 나 처음 한 프레젠테이션인데 엉망이었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 봐.”  
 “너무 긴장해서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정아 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다.”

- ① 수빈은 정아의 말에 자신이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② 수빈은 정아가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 ③ 수빈은 정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아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주고 있다.
- ④ 수빈은 정아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

답) ④. [난도 중, 화법] - 예상한 문제 유형

수빈이가 정아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재구성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콕>

-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 봐.” : 주의 집중,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배려
-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정아 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다.” : 주의 집중, 격려
- “너무 긴장해서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 : 수빈의 말에 정아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스스로 정리하게끔 했다.

5. 국어의 주요한 음운 변동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때, ‘부억일’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 유형으로 옳은 것은?

변동 전	→	변동 후
㉠ XaY	→	XbY(교체)
㉡ XY	→	XaY(첨가)
㉢ XabY	→	XcY(축약)
㉣ XaY	→	XY(탈락)

- ① ㉠, ㉡
- ② ㉠, ㉣
- ③ ㉡, ㉢
- ④ ㉡, ㉣

답) ①. [난도 중, 음운현상] - 예상한 문제 유형

· 부억일 → [부억닐: 음절끝소리 규칙(교체)] / ‘ㄴ’ 첨가 → [부영닐: 비음화(교체)]

6.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사회자: 학교 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말씀해 주시죠.

찬성 측: 친구가 학교 폭력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학교 폭력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폭력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과 같습니다. 폭력을 직접 행사하는 행위뿐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반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죠.

반대 측: 특정 학생에게 폭력을 직접 행사해서 피해를 준 사실이 명백할 때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개입과 방관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달린 문제이므로 외부에서 규제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 측부터 찬성 측에 대해 반론해 주시죠.

반대 측: 과연 누구까지를 학교 폭력의 방관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폭력을 목격했을 경우, 자신의 친구로부터 폭력에 관련된 소문을 접했을 경우 등 방관자라고 규정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려면 확고한 기준이 필요한데, 방관자의 범위부터 규정하기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성 측: 불의를 방관한 행위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후로도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불의를 모른 채하고 방관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사회 전체의 건전성과 도덕성을 떨어뜨릴 것이고, 정의에 근거한 시민의 고발정신까지 약화시킬 것입니다.

- ① 찬성 측은 친숙한 상황을 빗대어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 있다.
- ② 찬성 측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여 논지를 보충하고 있다.
- ③ 반대 측은 윤리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반대 측은 논제에 의문을 제기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답) ④. [난도 중, 화법] - 예상한 문제 유형

· 논제: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대 측은 방관은 자율적 의지이며 방관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논제에 의문(문제점)을 제기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7.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한국 문학의 미적 범주에서 눈에 띄는 전통으로 풍자와 해학이 있다. 풍자와 해학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에서 나온 (㉠) 을(를) 통해 드러난다. (㉠)은(는) ‘있어야 할 것’으로 행세해 온 관념을 부정하고, 현실적인 삶인 ‘있는 것’을 그대로 긍정한다. 이때 있어야 할 것을 깨뜨리는 것에 관심을 집중한 것이 (㉡)이고, 있는 것이 지닌 긍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이다.

- |          |        |        |
|----------|--------|--------|
| ㉠        | ㉡      | ㉢      |
| ① 골계(滑稽) | 해학(諧謔) | 풍자(諷刺) |
| ② 해학(諧謔) | 풍자(諷刺) | 골계(滑稽) |
| ③ 풍자(諷刺) | 해학(諧謔) | 골계(滑稽) |
| ④ 골계(滑稽) | 풍자(諷刺) | 해학(諧謔) |

답) ④. [난도 중, 어휘] - 예상한 문제 유형

지문에서 주어가 ‘풍자와 해학’ 이므로 문맥상 ㉠은 ‘골계’가 된다. 그리고 깨뜨리는 것(부정, 모순)에 집중하는 것은 ‘풍자’라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지닌 긍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은 ‘해학’이 된다.

<미소 곡>

- 골계(滑稽): 익살을 부리는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는 일
- 풍자(諷刺): 문학 작품 따위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면서 씀
- 해학(諧謔):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

8. 다음 글에서 <보기>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보기>

아침기도는 간략한 아침 뉴스로, 저녁기도는 저녁 종합 뉴스로 바뀌었다.

철학자 헤겔이 주장했듯이,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자 권위의 시금석으로서의 종교를 뉴스가 대체할 때 사회는 근대화된다. 선진 경제에서 뉴스는 이제 최소한 예전에 신앙이 누리던 것과 동등한 권력의 지위를 차지한다. 뉴스 타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 (㉠) 뉴스는 우리가 한때 신앙심을 품었을 때와 똑같은 공손한 마음을 간직하고 접근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 우리 역시 뉴스에서 계시를 얻기 바란다. (㉢)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한지 알기를 바라고, 고통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존재의 이치가 펼쳐지는 광경을 이해하길 희망한다. (㉣) 그리고 이 의식에 참여하길 거부하는 경우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 |     |     |
|-----|-----|
| ① ㉠ | ② ㉡ |
| ③ ㉢ | ④ ㉣ |

답) ①. [난도 중, 글의 순서] - 예상한 문제 유형

<보기>에서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라는 시간의 개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제시문의 ‘뉴스 타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라는 부분 다음에 넣는 것이 적절하다.

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헌 먼덕<sup>1)</sup>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풍채 적은 형용에 ㉠개 짓을 뿐이로다  
 와실(蝸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북창(北窓)을 비겨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戴勝)<sup>2)</sup>은 이내 한을 돋우도다  
 종조(終朝) 추창(惆悵)<sup>3)</sup>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리나다  
 세정(世情)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도다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에서 -

- \* 1) 먼덕: 짚으로 만든 모자
- 2) 대승(戴勝): 오디새
- 3) 추창(惆悵): 슬퍼하는 모습

- ① ㉠은 실재하는 존재물이고, ㉡은 상상적 허구물이다.
- ② ㉠은 화자의 절망을 나타내고, ㉡은 화자의 희망을 나타낸다.
- ③ ㉠은 화자의 내면을 상징하고, ㉡은 화자의 외양을 상징한다.
- ④ ㉠은 화자의 초라함을 부각시키고, ㉡은 화자의 수심을 깊게 한다.

답) ④. [난도 중, 가사] - 예상한 문제 유형

- ㉠: 제시문에 생략되었지만 화자는 논을 갈기 위해 소를 빌리러 갔으나 빌리지 못해 절망하고 있다. 실망감과 초라한 모습 그리고 늦은 저녁에 자신을 보고 짓고 있는 ‘개’는 더욱더 초라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 ㉡: 농사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들고 초가에 누워있는 자아의 걱정을 더욱 심하게 하는 소재다.

<미소 곡>

이 작품은 이인로가 이덕형(李德馨)과 교유할 때 자신의 곤궁한 생활을 묻는 데 대한 답으로 지은 것이다. 그 내용은 7단락으로 구분된다.

첫째 단락에서는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하늘에 맡기고 누추한 곳에서 가난하게 사는 심정을 노래하였으며, 둘째 단락에서는 가난한 생활로 굶주림과 추위를 겪으면서도 지

난날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백전고투하던 7년간의 일을 회상하고 있다. 셋째단락은 몸소 농사를 짓고자 하나 농사일에 쓸 소가 없어 낙심하는 대목이며, 넷째단락은 농우(農牛)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만 받고 돌아오는 대목을 그렸다. 다섯째는 집으로 돌아와서 야박한 세상 인심을 한탄하며 봄같이할 생각을 그만두는 대목이다. 여섯째는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을 벗 삼아 임자 없는 자연 속에서 곱게 늙기를 바라는 심경을 노래하고 있으며, 일곱째는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충효(忠孝)에 힘쓰며, 형제들과 화목하고 벗들과 신의(信義)를 지키도록 다짐하는 대목이다.

10. 화자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 성어는?

미인이 잠에서 깨어 새 단장을 하는데  
 향기로운 비단, 보배 띠에 원앙이 수놓였네  
 곱발을 비스듬히 걸으니 비취새가 보이는데  
 게으르게 은 아쟁을 안고 봉황곡을 연주하네  
 금 재갈, 꾸민 안장은 어디로 떠났는가?  
 다정한 앵무새는 창가에서 지저귀네  
 풀썩에 놀던 나비는 뜰 밖으로 사라지고  
 꽃잎에 가리운 거미줄은 난간 너머에서 춤추네  
 뉘 집의 연못가에서 풍악 소리 울리는가?  
 달빛은 금 술잔에 담긴 좋은 술을 비추네  
 시름겨운 이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는데  
 새벽에 일어나니 비단 수건에 눈물이 흥건하네  
 -허난설헌, 「사시사(四時詞)」에서-

- ① 琴瑟之樂                      ② 輾轉不寐
- ③ 錦衣夜行                      ④ 麥秀之嘆

답) ②. [난도 중, 가사 - 한자성어] - 예상한 문제 유형  
 화자는 ‘금 재갈, 꾸민 안장’ 을 한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시름겹고 외로운 밤에 잠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남편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그리고 외로움의 비애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 輾轉不寐(전전불매):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전전반측

<오답 곡>

- ① 琴瑟之樂(금슬지락): 부부간의 사랑
- ③ 錦衣夜行(금의야행):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다닌다는 뜻으로, 자랑삼아 하지 않으면 생색이 나지 않음을 이르는 말
- ④ 麥秀之嘆(맥수지탄):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기자(箕子)가 은(殷)나라가 망한 뒤에도 보리만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한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미소 곡>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규방 속에서의 고독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 정서, 그리고 한(恨)의 정서를 사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표현하고 있다. 4수가 각각 춘사, 하사, 추사, 동사라는 제목 하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네 계절의 풍경 속에서 느끼는 외로운 여인의 구구절절한 심정을 읊고 있다. 제시문은 춘사로 잠을 못 이루는 외로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앵무새가 정답게 속삭이고 나비가 꽃 속에서 춤을 추는 광경이며 구성진 피리소리는 임을 기다리는 쓸쓸한 심정을 나타낸다. 원앙새와 앵무새는 외로운 나와 대비되며 나비가 날아오르고 피리소리가 울어지는 것은 흘리는 눈물과 대비된다. 서로 상처되는 심상은 작가의 외로운 심정을 드러낸다.

11.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국어의 높임법에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법,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등이 있다. 이러한 높임 표현은 한 문장에서 복합적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 )의 경우 대화의 상대, 서술어의 주체, 서술어의 객체를 모두 높인 표현이다.

- ①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댁에 들어가셨다.
- ②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 ③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께 이 김치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 ④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③. [난도 중, 언어예절] - 예상한 문제 유형  
 하셨습니다(대화의 상대), 어머니께서(서술어의 주체), 아주머니께(서술어의 객체)

<오답 곡>

- ① 아버지께서(서술어의 주체), 할머니를(서술어의 객체)
- ② 될까요(대화의 상대), 어머니께(서술어의 객체)
- ④ 바랍니다(대화의 상대), 주민 여러분께서는(서술어의 주체)



답) ④. [난도 하, 현대소설] - 예상한 문제 유형  
신동이개를 놓친 것에 못마땅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동장네 절가' 다. 그러므로 간난이 할아버지의 행동에 동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미소 콕>

신동이라는 개의 이야기를 통해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한 작품이다. 신동이는 주인의 보호막을 잃은 데다가 낯선 목님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미친개 취급을 당한다. 하지만 그의 강인한 생명력은 위험을 무릅쓰고 토착 개들의 먹이그릇을 뒤흔으며, 종내는 자기의 자손들로 목님이 마을을 채우게 한다. 개를 주동인물로 내세움으로써 이 소설은 우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만주 이주의 길목인 목님이 마을을 배경으로 빈주먹으로 남의 땅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했던 유이민들은 '신동이'와 같은 강인한 삶의 의지로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고 후세를 낳아 그 생명을 이어간 것이다. 《목님이 마을의 개》를 단순한 동물 이야기로 읽는데 그칠 수 없는 역사적인 배경이 여기에 있다.

15. (가)와 (나)를 통해서 추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가) 찬성공 형제께서 정경부인의 상(喪)을 당하였다. 부윤공의 부인 이 씨가 우연히 언문 소설을 읽다가 그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 찬성공이 기뻐하지 않으며 제수를 계단 아래에 서게 하고, “부녀자의 무식을 심하게 책망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예의에 어긋난 책을 소리 내어 읽어서 스스로 평민과 같아지려 할 수 있는가?” 하고 꾸짖었다.

(나) 전기수: 늙은이가 동문 밖에 살면서 입으로 언문 소설을 읽었는데, 속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귀전과 같은 전기소설이었다. ...잘 읽었기 때문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빙 둘러섰다. 가장 재미있고 긴요하여 매우 들을 만한 구절에 이르면 갑자기 침묵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투어 돈을 던졌다. 이를 바로 '요전법(돈을 요구하는 법)' 이라 한다.

- ① 상중 남성들은 상중의 예법에 대해 매우 엄격하였다.
② 혼자 소설을 보면서 소리 내어 읽기도 하였다.
③ 하층에서도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이 많았다.
④ 상층이 아닌 하층에서도 소설을 즐겼다.

답) ③. [난도 하, 읽기] - 예상한 문제 유형

- ①·④ 어찌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예의에 어긋난 책을 소리 내어 읽어서 스스로 평민과 같아지려 할 수 있는가?
② 부윤공의 부인 이 씨가 우연히 언문 소설을 읽다가 그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
④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빙 둘러섰다./ 사람들이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투어 돈을 던졌다.

16. 다음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고전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서양 음악의 뿌리는 종교 음악에서 비롯되었다. 바로크 시대까지는 음악이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음악가들 또한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다. 고전파는 이렇게 종교에 예속되었던 음악을, 음악을 위한 음악으로 정립하려는 예술 운동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신을 위한 음악에서 탈피해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하고 균형 잡힌 절대 음악을 추구하였다. 즉 '신' 보다는 '사람'을 위한 음악, '음악'을 위한 음악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 준 것이다.

또한 고전파 음악은 음악적 형식과 내용의 완숙을 이룬 음악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음악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이때에는 성악이 아닌 기악만으로도 음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교향곡의 기본을 이루는 소나타 형식이 완성되었다. 특히 옛 그리스나 로마 때처럼 보다 정돈된 형식을 가진 음악을 해 보자고 주장하였기에 '옛것에서 배우자는 의미의 고전'과 '청정하고 우아하며 흐림 없음, 최고의 예술적 경지에 다다름으로서의 고전'을 모두 지향하게 되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고전파 음악은 종교의 영역에서 음악 자체의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음악적 내용과 형식을 수립하였다. 고전파 음악이 서양 전통 음악 전체를 대표하게 된 것은 고전파 음악이 이룩한 역사적인 성과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고전 음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파 음악의 성격과 특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① 고전파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의의를 밝힌다.
② 고전파 음악의 음악가를 예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③ 고전파 음악의 특징이 형식과 내용의 분리에 있음을 강조한다.
④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한다.

답) ③. [난도 중, 읽기] - 예상한 문제 유형

- ① 역사적으로 고전파 음악은 종교의 영역에서 음악 자체의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음악적 내용과 형식을 수립하였다.
② 이 시기에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음악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④ 고전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17.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적절히 추론한 것은?

(가) 철학사에서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예컨대 플라톤은 감각이 보여 주는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적으로 불안정한 세계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경험론자들은 우리의 모든 관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는 없다고 결론짓는다.

(나) 모든 사람은 착시 현상 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감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모든 감각적 정보를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받아들이다가는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도 당연하다.

- ①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경험론적 사고에 토대를 둔다.
- ②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일상생활에서는 합리론적 사고를 우선하여야 한다.
- ③ 과학 연구는 합리론을 버리고 철저히 경험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분야에나 전적으로 차별 없이 요구된다.

답) ①. [난도 중, 읽기] - 예상한 문제 유형

과학적 연구는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실용적 기술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에서는 경험적 자료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경험적 사고에 토대를 둔다로 추론할 수 있다.

<오답 콕>

- ②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 ③ 경험적 사고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
- ④ 과학적 연구에서는 감각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는 경계해야 한다.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믿기 어렵겠지만 자장면 문화와 미국의 피자 문화는 닮은 점이 많다. 젊은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닮은꼴이다. 이사한다고 짐을 내려놓게 되면 주방 기구들이 부족하게 되고 이때 자장면은 참으로 편리한 해결책이다. 미국에서의 피자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아이들의 친구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피자는 참으로 편리한 음식이다.

남자들이 군에 가 훈련을 받을 때 비라도 추적추적 오게 되면 자장면 생각이 제일 많이 난다고 한다. 비가 오는 바깥을 보며 따뜻한 방에서 입에 자장을 묻히는 장면은 정겨울 수밖에 없다. 프로 농구 원년에 수입된 미국 선수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자를 시켜 먹었다고 한다. 음식이 맞지 않는 탓도 있겠지만 향수를 달래고자 함이 아닐까?

싸게 먹을 수 있는 이국 음식이란 점에서 자장면과 피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외식을 하기엔 부담되고 한번쯤 식단을 바꾸어 보고 싶을 즈음이면 중국식 자장면이나 이탈리아식 피자는 한국이나 미국의 서민에게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피자 배달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피자를 간식이 아닌 주식으로 삼고자 하는 아이들도 생겼다. 졸업식을 마치고 중국집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이 이제 피자집으로 돌려졌다. 피자보다 자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 ① 피자는 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음식이다.
- ② 자장면과 피자는 이국적인 음식이다.
- ③ 자장면과 피자는 값이 싸면서도 기분 전환이 되는 음식이다.
- ④ 자장면은 특별한 날에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다.

답) ④. [난도 하, 읽기] - 예상한 문제 유형

졸업식을 마치고 중국집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이 이제 피자집으로 돌려졌다. 피자보다 자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19.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개념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의어는 서로 경쟁을 통해 하나가 없어지거나 각기 다른 의미 영역을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현실 언어에서 동의어로 공존하면서 경쟁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쪽은 살아남고 다른 쪽은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동의 충돌의 결과 의미 영역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의미 교체 등으로 구분된다.

- ① ‘가을걷이’와 ‘추수’는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다.
- ② ‘말미’는 쓰지 않고 ‘휴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얼굴’은 ‘형체’의 뜻에서 ‘안면’의 뜻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 ④ ‘겨레’는 ‘친척’의 뜻에서 ‘민족’의 뜻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답) ②. [난도 중, 어휘] - 예상한 문제 유형**

‘말미’는 일정한 직업이나 일 따위에 매인 사람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얻는 겨를로 한자어 ‘休暇(휴가)’와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는 동의어다.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20세기 들어서 생태학자들은 지속성 농약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해충 구제용으로 널리 사용됨으로써 농업 생산량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한 디디티(DDT)는 유기 염소계 살충제의 대명사이다.
- (나) 그렇지만 이 유기 염소계 살충제는 물에 잘 녹지 않고 자연에서 햇빛에 의한 광분해나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분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디디티는 토양이나 물속의 퇴적물 속에 수십 년간 축적된다. 게다가 디디티는 지방에는 잘 녹아서 먹이사슬을 거치는 동안 지방 함량이 높은 동물 체내에 그 농도가 높아진다. 이렇듯 많은 양의 유기 염소계 살충제를 체내에 축적하게 된 맹금류는 물질대사에 장애를 일으켜서 깍질이 매우 얇은 알을 낳기 때문에, 포란 중 대부분의 알이 깨져 버려 멸종의 길을 걷게 된다.
- (다) 디디티는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뿌려진 디디티는 물과 공기, 생물체 등을 매개로 세계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다. 그래서 디디티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알래스카 지방의 에스키모 산모의 젖에서도 디디티가 검출되었고, 남극 지방의 펭귄 몸속에서도 디디티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생물 농축과 잔존성의 특성이 밝혀짐으로써 미국에서는 1972년부터 디디티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유기 염소계 농약의 사용이 대부분 금지되었다.
- (라) 이와 같이 디디티의 생물 농축 현상에서처럼 생태학자들은 한 생물 종에 미치는 오염의 영향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전체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래서인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소한 환경오염 행위가 장차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① (가)는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핵심어를 제시함으로써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나)는 디디티가 끼칠 생태계의 영향을 인과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다)는 디디티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그것의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 ④ (라)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답) ③. [난도 중, 읽기] - 예상한 문제 유형**

(다)는 디디티의 악영향을 예시로 제시하고, 생산과 사용을 금지한 미국을 언급했다.

- 디디티의 사용 금지를 주장한 것은 찾을 수 없다.

**총평 :**

2019년 국가직 시험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과 같이 독서와 문학 지문이 많아 시간의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사려된다.

전통적으로 출제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국어규범은 2017년부터 문항수가 대폭 축소되었는데, 올해도 그 흐름이 이어졌다. 품사와 언어예절 그리고 음운현상 등 3문제만 출제되었다.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학생이라면 쉽게 맞힐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런 경향을 지속될 듯싶다. 그러므로 수험생은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법영역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장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독서는 작년보다 한 문제 적은 5문제가 출제되었고, 제시된 조건에 맞는 논제를 고르는 작문이 1문제 출제되었다. 이것 역시 수능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춘 문제이지만 지문은 짧고 평이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수업시간에 강조했듯이 평소에 생소한 지문을 지속적으로 읽는 학습법을 실천한다면 이 영역은 쉽게 정복할 수 있다.

문학은 작년보다 한 문제가 늘어 6문제나 출제되었다. 가사(누항사, 사시사), 고전소설(춘향전), 현대시(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현대소설(목님이 마을의 개), 희곡(파수꾼) 등 전영역이 고르게 출제되었다. 문학의 기초 감상법을 충실히 익힌 사람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수험생은 이 작품을 배웠다 배우지 않았다고 접근하는 학습법을 버리고 영역에 따른 기초 감상법을 충실히 익혀 어떤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어휘는 작년과 동일하게 3문항이 출제되었다. 한자성어, 한자어의 의미 구별 등을 물었는데, 침착성을 유지한 학생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번 시험에서 눈에 띄는 것은 화법 문제가 3문제나 출제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능과의 연계로 출제된 것이다. 현재 국어영역에서는 화법이 작문과 연계해 10문제나 출제되고 있다. 이런 경향이 공무원시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 영역은 시간을 아끼려는 조급한 생각을 버리고 침착하고 세밀한 독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19년 국가직 시험은 한자가 출제되지 않아 체감 난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수능 국어영역의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읽기와 문학 그리고 화법 등이 출제되어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리 녹록한 시험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난도 상인 문제는 없었고, 난도 중인 문제가 14문제, 난도 하인 문제가 6문제 출제되었다. 그러므로 상위권 학생들은 실수를 감안하더라도 90점은 맞아야 하는 시험으로 작년보다 1개 정도 수월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